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포천

강 육
자유기고가

포천(抱川)은 예로부터 명승지가 많은 선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조선 세조 때의 유명한 문신인 성임은 “천 층 산이 북쪽에 우뚝하고, 한 줄기 물이 남쪽 북쪽으로 흐르는 곳”이 포천군이라 하였다. 경기도 동북단에 위치한 포천군은 동으로 가평군과 강원도 화천군, 서로는 연천군, 양주군, 동두천시, 남으로는 의정부시, 양주군, 북으로는 강원도 철원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포천군은 군 전체가 산악지대이다. 동남 북의 삼면에는 광주산맥이 솟아 올린 국망봉, 강씨봉, 백운산, 청계산, 운악산 등 1,000미터 안팎의 산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또한 이동면 백운산에서 발원한 영평천이 동에서 서로 흘러 포천읍, 일동면, 창수면 등을 거쳐 한탄강으로 들어간다. 산정 호수, 백운계곡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과 비경이 어우러진 포천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포천군의 곳곳에는 태봉국 왕 궁예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그것은 이 군의 북쪽이 바로 그가 후고구려를 일으켰던 강원도 철원군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군 내면 구읍리에는 허물어지다 만 돌담으로 반월성터가 사적 제403호로 남아 있다. 반월성은 궁예의 세력이 한창일 때에 세운 것이라고 전해진다. 반월산성이 위치한 군 내면 구읍리는 지명이 말해주듯 조선시대 포천현의 관아가 있던 곳으로,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다.

반월산성은 바로 이 구읍리의 뒷편에 있는 반월산의 7부에서 9부 능선 위에 있다. 산봉을 에워싼 형식인 테피식 산성으로 성의 형태가 마치 반달과 같아 반월산성이라고 부른다. 둘레가 1,080m로 동서가 길쭉한 반월형이며 성곽안에는 성문터가 2개소, 적을 관찰하거나 막기 위해 설치한 치성 4개소, 건물터 6개, 우물 및 수구 흔적이 2개, 장대 및 망대 2개가 있다. 반월산성은

전략적 요충지였으나 고려시대에는 개경이 수도가 됨으로써 폐성되었다가 조선시대 광해군 때에 후금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영북면 산정리에는 산정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해발 922m의 명성산이 있다. 골이 깊고 산세가 심오하여 용이 승천하였다는 등룡폭포와 선녀의 전설이 담긴 비선폭포 등이 있어 절경을 자랑한다. 여기에도 태봉국 궁예에 관한 전설이 굵이마다 전해져 온다. 명성산(鳴聲山), 곧 울음산이란 궁예가 왕건과 싸워 지고 난 뒤에 도망쳐 와 크게 울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그 둘레에 있는 패주골은 궁예가 저서 도망친 곳, 향서받골은 궁예가 왕건에게 항복을 하였다는 곳, 망봉(望峰)은 왕건의 군사가 쫓아 오는 것을 망보았다는 곳이라고 한다.

산정호수는 포천 제일의 관광명소로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명성산을 비롯한 여러 산봉우리가 호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호수 주변의 자인사와 등룡폭포, 비선폭포 등이 빼어난 경관을 연출한다. 특히 이곳의 산책로는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며 보트장, 방갈로, 수영장, 온천 등 여러 가지 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 명성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산정호수의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움이나 가을 억새밭 풍경은 한 폭의 산수화 같다.

“살아서는 포천 가야 양반이고 죽어서는 장단 가야 양반이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포천군에는 예로부터 벼슬을 그만둔 선비와 양반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그 중에는 이항복, 이덕형, 유응부, 최익현 같이 대쪽

같은 성품과 절개를 자랑하는 선비들이 있었다.

철령 높은 재에 자고 가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를 비 삼아 띄웠다가
님 계신 구중궁궐에 뿌려본들 어떠하리

오성대감 이항복의 시로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 가던 고독한 심정과 충정을 애뜻하게 달랐다. 그는 포천 사람으로 가산면 금현리에 선생의 묘소가 있는데 경기도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다. 부인 안동 권씨와 나란히 잠든 쌍묘 앞에는 묘비가 서있고 그 좌우로 망주석과 문인석이 한 쌍씩 서 있다. 생전의 그의 인품을 대하듯 이항복의 묘는 소박하고 조출한 모습이다. 석물이나 나지막한 봉분은 일반인의 묘와 별반 다를게 없고, 묘역 앞의 사당 또한 2칸의 아담한 집으로 꾸며져 있다.

권윤의 사위이기도 했던 청백리 이항복은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다스리고, 임진왜란 때에는 선조의 피난길을 도와 벼슬이 영의정까지 올랐다. 그러나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비에 반대하다가 결국 관직을 삭탈당하고 북청으로 유배돼 62세로 생을 마감한다. 그는 어느 당파에도 예속되지 않고 국난극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소신을 가지고 시비를 가릴 줄 알았던 선비로 후세에 많은 교훈을 안겨 주었다.

많은 산마다 깊은 골이 패이고 그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넘쳐흐르는 포천군에는 예로부터 이 물 속에서 잡은 산개구리 요리와 이 물을 받아 빚은 막걸리가 유명하

다. 포천군 사람들은 겨울철에 산개구리를 잡는다. 산개구리는 보통 개구리와는 달리 산골짜기를 흐르는 물 속에 깔린 돌 밑에서 납작하게 엷드려 겨울잠을 잔다. 이 산개구리는 정력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구 잡는 바람에 이제는 영북면에 있는 산정호수 둘레에서나 겨우 찾아볼 수 있다.

맛이 뛰어나고 도수가 높은 포천 막걸리는 전국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포천군의 특산품이다. 특히 이동면에서 만드는 막걸리가 더 유명한데 이 막걸리를 마시려고 일부러 다른 지방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다. 자연환경과 물맛이 갖추어져야 명주(名酒)가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 이동갈비도 맛과 영양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명성이 자자하다. 이동갈비는 이동면 장암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백운계곡 등 인근의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 포천군을 포함한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밤나무, 잣나무 따위가 많은데, 양주군이 밤으로 이름을 날린다면 포천군에는 잣이 유명하다. 이 군에서 나는 잣은 알이 굵고 껍질은 얇아 잣송이가 알차기로 나라안에서 으뜸이다. 청산면 금동리에서 많이 나. 청산잣 또는 금동잣이라고 이름이 붙은 포천잣은 수확량도 많아 한 집에서 백 가마씩 거둘 때도 있다고 한다.

산정호수에서는 매년 10월 '명성산 억새꽃축제'가 열리는데 많은 등산객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 명성산 정상 부근은 완만한 경사를 이룬 억새풀밭지대로 산정호수의 잔잔한 물빛과 드넓은 초원의 억새풀이 어우러져 늦가을의 정취를 한껏 더한다. 포천은 밭길 닿는 곳마다 맑은 물과 푸른 숲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계절마다 독특한 분위기의 비경과 다양한 특산품과 먹거리는 포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